

종신회원이 되어야

하는 당위성



(주)서울시스템서비스/대표이사 이석철

협 회에서 편지 한 통이 왔다. 금년에 년 회비가 인상되니 인상되기 전에 회비를 납부하면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다. 덧붙여서 이왕이면 종신회원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다. 협회의 규정으로 년 회비 12번을 내면 자동 종신회원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3년분 마저 납부하여 종신회원이 되면 앞으로 년 회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다.

협회 회원들이 나이 들어가고 직장에서도 물러나고 하면 년 회비가 부담이 될 거라는 배려 때문에 입회 후 12번의 년 회비를 납부하면 자동 종신회원이 되는 제도는 상당히 일리있는 조치이었다. 일각에서는 전 회원이 종신회원이 되면 협회 운영은 무슨 돈으로 하느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당시의 집행부에서는 협회가 어느 정도 기본 자산이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공익사업을 통한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재정적인 염려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.

막상 종신회원 안내를 받고 보니 잠시 여러 가지 생각들

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진다. 협회 가입한지 벌써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지금까지 나는 협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, 그보다 더 협회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 즉, 내가 협회회원이 되어 나한테 플러스 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계산이 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.

무엇보다 더 내 머리를 때리는 생각은 내 나이 70아니 80이 되었을 때에도 현재 협회 회원들과 지금과 같이 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다. 만약에 내 대답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이라면 나는 종신회원이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, 그렇다면 나는 이 전문가협회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잠시 눈을 감아본다.

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만다. 내 인생의 반려자는 많이 있다. 그리고 현재 협회 회원들도 내가 이 업계에서 운명을 같이 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 진정한 친구들인 것이다.

건강이 첫째이고, 마누라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은 같이 시간을 보낼 친구 그리고 즐길 취미와 이를 뒷감당 할 재정적인 면들이 나이 들면서 꼭 갖추어야 할 5대 조건이라는 요즈음 유행하는 말이 자꾸만 되새겨 진다.